

《맹자》와 《세설신어》 부정문 문형 비교 연구*

현성준**

◁ 목 차 ▷

- I. 서언
 - II. ‘不’부정문 문형 비교
 - III. ‘未’부정문 문형 비교
 - IV. ‘無’부정문 문형 비교
 - V. ‘弗’부정문 문형 비교
 - VI. ‘勿’부정문 문형 비교
 - VII. 결어
-

I. 서언

중국어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고시기¹⁾에서 중고시기로 넘어오면서 중국어의 부정문은 그 구성요소에서는 부정문에 쌍음절 부정사²⁾가 사용되기 시작하고, 문형적인 측면에서는 대사빈어의 후치현상이 기본적으로 완성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상고시기의 대표적인 문헌자료인 《맹자》와 중고시기의

* 이 논문은 2010년도 건국대학교 신입교원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미래대학 교양학부 조교수.

1) 본고에서는 중국어사 시기 구분에 있어, 중국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분류방식에 근거하여 선진(先秦)부터 서한(西漢)까지를 ‘상고(上古)’라 칭하고, 동한(東漢)부터 수(隋)까지를 ‘중고(中古)’라 칭하기로 한다.

2) 중고시기 새로 나타난 쌍음절 부정사가 만들어지는 방식으로는 ‘파생’과 ‘복합’ 두 가지가 있는데, 중고시기 ‘파생’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쌍음절 부정사로는 ‘不復’, ‘勿復’, ‘非復’, ‘未復’ 등이 있으며, ‘복합’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쌍음절 부정사로는 ‘未嘗’, ‘未曾’, ‘不會’ 등이 있다.

대표적인 문헌자료인 《세설신어》를 텍스트로 선정하여, 그 중에서 '不'부정문, '未'부정문, '無'부정문, '弗'부정문, '勿'부정문 등 5종의 부정문 문형을 모두 뽑아낸 뒤, 통계조사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상고시기의 부정문과 중고시기 부정문이 문형상으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 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不'부정문 문형 비교

부정부사 '不'는 《맹자》³⁾와 《세설신어》⁴⁾의 부정부사 가운데서 그 출현 빈도로 볼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맹자》에서 부정부사 '不'로 이루어진 부정문의 수는 총 498개이며, 《세설신어》에서 '不'부정문의 총 수는 650개이다.

다음에서는 《맹자》와 《세설신어》중의 '不'부정문을 부정부사 '不'가 부정하는 대상의 구조형식에 따라 몇 가지 형식으로 분류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⁵⁾

1. [S+不+V]⁶⁾형

이러한 유형에서 주어로 충당되는 S는 생략이 가능한 명사적인 성분을 나타내며, 여기서의 V는 앞뒤로 아무런 수식성분과 빈어 없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지칭한다. 예를 들면:

(1) 是不難.(《孟子·公孫丑上》)

3) 본고에서는 楊伯峻 譯注, 《孟子譯註》, 北京, 中華書局, 1980을 저본으로 삼음.

4) 본고에서는 張萬起, 劉尙慈 譯注, 《世說新語譯註》, 北京, 中華書局, 1998을 저본으로 삼음.

5) 본고에 사용된 부정문의 문형 분석은 吳福祥(1996)과 崔宰榮(2001)이 피동문 문형 분석에 사용한 방법을 참고하였다.

6) S는 주어로 충당되는 명사적인 성분으로 생략이 가능하고, V는 술어로서 서술사로 주로 사용되는 것을 지칭하며, Z는 부사어, O는 빈어, C는 보어를 나타낸다.

- (이것은 어렵지 아니합니다.)
 (2) 夫貉, 五穀不生.(《孟子·告子下》)
 (貉에서는 각종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3) 謝公不許.(《世說新語·政事》)
 (謝公은 윤택하지 않았다.)
 (4) 王夷甫與裴景聲志好不同.(《世說新語·雅量》)
 (王夷甫와 裴景聲은 뜻하는 바와 취미가 같지 않았다.)

위의 예문(1)부터 예문(4)에서 부정부사 '不'가 부정하는 대상은 단독으로 사용된 서술사 '難', '生', '許', '同'이며, 이 중 '難'과 '同'은 형용사이고, '生'과 '許'는 동사이다. 이러한 [S+不+V]구조는 《맹자》중 150회 출현하고, 《세설신어》에서는 186회 출현한다.

2. [S+不+V+O]형

이러한 유형에서 주어로 충당되는 S는 생략이 가능한 명사적인 성분을 나타내며, 부정부사 '不'의 부정을 받는 서술사 V는 빈어 O를 지닌다. 예를 들면:

- (5) 之齊, 不見儲子.(《孟子·告子下》)
 (齊나라에 가서는 儲子를 예방하지 않습니다.)
 (6) 今不睹盛明之世.(《世說新語·方正》)
 (지금은 번창하고 공명한 세상을 볼 수가 없다.)

예문(5)에서는 서술사 '見'이 빈어로 명사 '儲子'를 취하고, 예문(6)에서 서술사 '睹'가 취하는 빈어는 명사성 성분인 '盛明之世'이다. [S+不+V+O]구조는 《맹자》중 142회 출현하고, 《세설신어》에서는 220회 출현한다.

3. [S+不+O代賓+V]형

이러한 유형에서 주어로 충당되는 S는 생략이 가능한 명사적인 성분을 나타내며, 부정부사 '不'의 부정을 받는 서술사 V는 대사빈어 O를 지닌다. 선진시

기 부정문에서 서술사로 사용되는 동사의 대사빈어는 자주 전치된다.⁷⁾ 이러한 현상이 《맹자》의 '不'부정문에도 영향을 끼쳐, [S+不+O代賓+V]구조가 《맹자》에 2회 출현한다.

- (7) 夫出晝, 而王不予追也.(《孟子·公孫丑下》)
 (晝를 벗어나면, 왕은 나를 쫓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8) 今也父兄百官不我足也.(《孟子·滕文公上》)
 (동네의 어른들과 관리들은 저를 흠족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고시기 《세설신어》의 '不'부정문에서는 대사빈어의 전치현상이 보이지 않으며, 모두 후치되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⁸⁾

- (9) 驃騎看文書, 不顧之.(《世說新語·政事》)
 (驃騎는 문서만을 볼 뿐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10) 我不看此, 卿等何以得存?(《世說新語·政事》)
 (내가 이것을 보지 않았다면, 경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毛遠明(1990)에 의하면 중국어 부정문에서 대사빈어의 후치현상은 동한후기 실제 구어 속에서 이미 완성되었다고 한다. 《세설신어》 '不'부정문에 나타난 상황은 이러한 그의 관점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4. [S+不+V+C]형

이러한 유형에서 주어로 충당되는 S는 생략이 가능한 명사적인 성분을 나타내며, 부정부사 '不'의 부정을 받는 서술사 V는 보어 C를 지닌다. 예를 들면:

- (11) 是故知命者不立乎巖牆之下.(《孟子·盡心上》)

7) 선진시기 부정문에서의 대사빈어 전치현상은 周光午, 〈先秦否定句代詞賓語位置問題〉, 《語文論集》 第3集, 1959를 참조할 것.

8)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도 《세설신어》 '不'부정문에서 대사가 후치된 경우가 총 19회 출현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자신의)명을 아는 사람은 위험한 담벼락 밑에 서 있지 않습니다.)

(12) 先君與君自不至於此.(《世說新語·方正》)

(선친과 당신의 관계는 본래 여기까지는 이르지 않았소.)

위의 예문(11)과 예문(12)에서 서술사인 ‘立’과 ‘至’의 보어는 각각 개빈구조인 ‘乎巖牆之下’와 ‘於此’이다. [S+不+V+C]구조는 《맹자》중 44회 출현하고, 《세설신어》에서는 34회 출현한다.

5. [S+不+Z+V]형

이러한 유형에서 주어로 충당되는 S는 생략이 가능한 명사적인 성분을 나타내며, 부정부사 ‘不’의 부정을 받는 서술사 V는 앞에 부사어 Z를 지닌다. 예를 들면:

(13) 父子不相見, 兄弟妻子離散.(《孟子·梁惠王下》)

(부모와 자식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형제와 처자식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14) 雖有竊秦之爵, 千駟之富, 不足貴也.(《世說新語·言語》)

(비록 진나라 제상의 작위가 있거나, 말 사천 필을 가질 만큼의 부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족히 진귀한 것이 못 됩니다.)

위의 예문(13)에서 서술사인 ‘見’의 부사어는 부사 ‘相’이고, 예문(14)에서 서술사인 ‘貴’의 부사어는 조동사 ‘足’이다. [S+不+Z+V]구조는 《맹자》중 60회 출현하고, 《세설신어》에서는 140회 출현한다.

6. [S+不+Z+V+O]형

이러한 유형에서 주어로 충당되는 S는 생략이 가능한 명사적인 성분을 나타내며, 부정부사 ‘不’의 부정을 받는 서술사 V 앞에는 부사어 Z가, 뒤에는 빈어 O가 온다. 예를 들면:

- (15) 吾力足以舉百鈞, 而不足以舉一羽.(《孟子·梁惠王上》)
 (나의 힘은 삼천 근은 들어올릴 수 있으나, 깃털 하나는 들 수 없다.)
 (16) 又與先人至交, 不宜說之.(《世說新語·德行》)
 (또한 선친과는 가장 친한 사이였으니, 마땅히 그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위의 예문(15)에서 조동사 '足以'가 서술사인 동사 '舉'의 부사어이고, '一羽'가 빈어이다. 예문(16)에서는 조동사 '宜'가 서술사인 동사 '說'의 부사어이고, 대사 '之'가 '說'의 빈어이다. [S+不+Z+V+O]구조는 《맹자》중 73회 출현하고, 《세설신어》에서는 42회 출현한다.

7. [S+不+Z+V+C]형

이러한 유형에서 주어로 충당되는 S는 생략이 가능한 명사적인 성분을 나타내며, 부정부사 '不'의 부정을 받는 서술사 V 앞에는 부사어 Z가, 뒤에는 보어 C가 온다. 예를 들면:

- (17) 非其道, 則一簞食不可受於人.(《孟子·滕文公下》)
 (도에 맞지 않는다면, 한 광주리의 밥이라도 남에게서 받을 수 없습니다.)
 (18) 夜光之珠, 不必出於孟津之河.(《世說新語·言語》)
 (야광의 구슬이 반드시 孟津의 강에서 나오지는 않는다.)

위의 예문(17)에서 조동사 '可'가 서술사인 동사 '受'의 부사어이며, '於人'이 '受'의 보어이다. 예문(18)에서는 부사 '必'이 서술사인 동사 '出'의 부사어이며, '孟津之河'가 '出'의 보어이다. [S+不+Z+V+C]구조는 《맹자》중 8회 출현하고, 《세설신어》에서는 6회 출현한다.

8. [S+不+Z+V+O+C]형

이러한 유형에서 주어로 충당되는 S는 생략이 가능한 명사적인 성분을 나타내며, 부정부사 '不'의 부정을 받는 서술사 V 앞에는 부사어 Z가 뒤에는 빈어

O와 보어 C가 온다. 예를 들면:

(19) 子之不得受燕於子嚮.(《孟子·公孫丑下》)

(子之는 子嚮에게서 燕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 范以爲無用, 不宜勞思於此.(《世說新語·巧藝》)

(范은 쓸모없다고 여기고, 마땅히 여기에는 심려를 들일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위의 예문(19)에서 조동사 '得'이 서술사인 동사 '受'의 부사어이며, '燕'은 '受'의 빈어, 개빈구조인 '於子嚮'가 '受'의 보어이다. 예문(20)에서는 조동사 '宜'가 '勞'의 부사어이며, '思'가 '勞'의 빈어, 개빈구조인 '於此'가 '勞'의 보어이다. [S+不+Z+V+O+C]구조는 《맹자》중 1회 출현하고, 《세설신어》에서는 2회 출현한다.

9. [S+不+V₁+V₂]형

이러한 유형에서 주어로 충당되는 S는 생략이 가능한 명사적인 성분을 나타내며, 부정부사 '不'의 부정을 받는 서술사 V는 두 개의 서술사가 연속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서술사의 앞뒤에는 부사어, 보어, 빈어 등의 성분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21) 是以不往見也.(《孟子·梁惠王下》)

(이런 까닭에 가서 보지 마십시오.)

(22) 淵源語不超詣簡至.(《世說新語·賞譽》)

(淵原의 말은 탁월하지도 간명하지도 않다.)

위의 예문(21) 술어 부분에서 '往'과 '見' 두 개의 서술사가 연속으로 나오며, 예문(22)에서는 서술사 '超詣'와 '簡至'가 연속된다. [S+不+V₁+V₂]구조는 《맹자》중 10회 출현하고, 《세설신어》에서는 5회 출현한다.

10. [S+不+Z+V₁+V₂]형

이러한 유형에서 주어로 충당되는 S는 생략이 가능한 명사적인 성분을 나타내며, 부정부사 '不'의 부정을 받는 서술사 V는 두 개의 서술사가 연속으로 이루어지며, 다시 두 개의 서술사 앞에 부사어 Z가 온다. 예를 들면:

- (23) 梓匠輪輿能與人規矩. 不能使人巧. (《孟子·盡心下》)
 (梓匠과 輪輿가 남에게 規矩를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남으로 하여금 공교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 (24) 臣不能吞炭漆身. (《世說新語·方正》)
 (신은 숯을 삼키고 몸에 옷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예문(23)에서 서술사 '使人'과 '巧'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연속되는 서술사 앞에는 다시 조동사 '能'이 오게 된다. 예문(24)에서는 서술사 '吞炭'과 '漆身'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연속되는 서술사 앞에 조동사 '能'이 온다. [S+不+Z+V₁+V₂]구조는 《맹자》중 8회 출현하고, 《세설신어》에서는 12회 출현한다.

11. [S+不+爲+N施+所+V]형⁹⁾

피동문의 일종인 '爲+N施+所+V'는 전국(戰國)시기 후기에 출현하였는데,¹⁰⁾ 《맹자》의 '不'부정문에는 아직 부정사 '不'가 '爲+N施+所+V'구조를 부정한 용례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세설신어》에는 이러한 용례가 나타나게 되며, 3회 출현하였다. 예를 들면:

- (25) 不爲王劉所知. (《世說新語·輕詆》)
 (王과 劉의 눈에는 들지 않았다.)
- (26) 王北中郎不爲林公所知. (《世說新語·輕詆》)
 (王北中郎은 林公의 눈에는 들지 않았다.)

9) '施'는 시사(施事)로서 동작이나 행위의 시행자를 가리킨다.

10) 向熹, 《簡明漢語史》(下),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1993, 151쪽 참조.

다음의 표는 《맹자》와 《세설신어》에 나타난 ‘不’부정문의 종류와 그 출현횟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1]

문형 \ 문헌	맹자	세설신어
S+不+V	150 (30.1%)	186 (28.6%)
S+不+V+O	142 (28.5%)	220 (33.8%)
S+不+O代賓+V	2 (0.4%)	0 (0%)
S+不+V+C	44 (8.8%)	34 (5.2%)
S+不+Z+V	60 (12.1%)	140 (21.6%)
S+不+Z+V+O	73 (14.7%)	42 (6.5%)
S+不+Z+V+C	8 (1.6%)	6 (0.9%)
S+不+Z+V+O+C	1 (0.2%)	2 (0.3%)
S+不+V ₁ +V ₂	10 (2.0%)	5 (0.8%)
S+不+Z+V ₁ +V ₂	8 (1.6%)	12 (1.8%)
S+不+爲+N施+所+V	0 (0%)	3 (0.5%)
통계	498 (100%)	650 (100%)

[표1] 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맹자》와 《세설신어》에는 ‘不’부정문의 유형이 각각 10종이 나타난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전국시기 후기에 새롭게 나타난 피동문 유형인 ‘爲+N施+所+V’의 영향으로 《맹자》에는 출현하지 않던, 부정문 유형인 [S+不+爲+N施+所+V]구조가 《세설신어》에 새로 출현하였고, 또한 《세설신어》에는 [S+不+O代賓+V]구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중고시기 ‘不’부정문에서 대사빈어의 후치현상이 기본적으로 완성되었음을 반영해준다고 할 수 있다.

Ⅲ. ‘未’부정문 문형 비교

《맹자》에서 부정부사 ‘未’로 이루어진 부정문의 수는 총 74개이며, 《세설신어》에서 ‘未’부정문의 총 수는 115개이다.

부정부사 ‘未’가 부정하는 대상의 구조형식에 따라 《맹자》와 《세설신어》중의 ‘未’부정문은 아래의 몇 가지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S+未+V]형

《맹자》와 《세설신어》중에서 [S+未+V]구조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 禮貌未衰.(《孟子·告子下》)
(예의범절이 아직 쇠하지 않았습니다.)
- (2) 門未開.(《世說新語·任誕》)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S+未+V]구조는 《맹자》중 9회 출현하고, 《세설신어》에서는 44회 출현한다.

2. [S+未+V+O]형

《맹자》와 《세설신어》중에서 [S+未+V+O]구조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3) 聞誅一夫紂矣, 未聞弑君也.(《孟子·梁惠王下》)
(紂를 주살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임금을 시해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 (4) 孔丘居司寇之任, 未爲不仁.(《世說新語·政事》)
(孔丘가 司寇의 직책에 있었던 것이 어질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S+未+V+O]구조는 《맹자》중 37회 출현하고, 《세설신어》에서도 37회 출현한다.

3. [S+未+O代賓+V]형 / [S+未+O代賓+Z+V]형

《맹자》와 《세설신어》의 ‘未’부정문에서 대사빈어의 전치현상은 여전히 존재하나, 그 수량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맹자》의 ‘未’부정문에서는 14개의 용례가 보이는 반면에, 《세설신어》에서는 2개의 용례만이 보인다. 이는 앞서 ‘不’부정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중고시기 부정문에서 대사빈어의 후치현상이 기본적으로 완성되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5) 臣未之聞也。(《孟子·梁惠王上》)

(신은 이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6) 天下不心服而王者, 未之有也。(《孟子·離婁下》)

(천하의 사람들이 심복하지 않는데도 왕 노릇을 하는 자는 있지 아니합니다.)

(7) 坐者未之信。(《世說新語·術解》)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이를 믿지 아니하였다.)

‘未’부정문의 대사빈어 전치구조에서 서술사로 사용되는 동사의 앞에 조동사나 부사가 올 경우, 대사전치빈어는 조동사나 부사의 앞에 위치할 수 있는데,¹¹⁾ 《세설신어》의 ‘未’부정문에서는 이러한 용례가 1개 보인다.

(8) 雖愍王家亦未之皆悉, 而無忌兄弟皆稚。(《世說新語·仇隙》)

(愍왕의 집 사람들이 또한 모두 알지 못했다 칠 수도 있고, 또한 (당시에) 無忌의 형제들이 모두 어렸습니니다.)

11) 張雙棣 等 編著, 《古代漢語知識教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2, 304쪽 참조.

4. [S+未+V+C]형

《맹자》와 《세설신어》중에서 [S+未+V+C]구조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9) 且以文王之德, 百年而後崩, 猶未洽於天下.(《孟子·公孫丑上》)
 (또한 文王의 덕을 가지고 백년 뒤에 崩하셨는데도 아직 그 (덕행이) 천하에 퍼지지 못하였습니다.)
- (10) 老莊未免於有.(《世說新語·文學》)
 (老子和 莊子는 (세속의) '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S+未+V+C]구조는 《맹자》중 2회 출현하고, 《세설신어》에서는 6회 출현한다.

5. [S+未+Z+V]형

《맹자》와 《세설신어》중에서 [S+未+Z+V]구조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1) 今既數月矣, 未可以言與?(《孟子·公孫丑下》)
 (지금 이미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말을 할 수 없단 말인가?)
- (12) 此故未易得.(《世說新語·寵禮》)
 (이런 까닭에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S+未+Z+V]형은 《맹자》중 2회 출현하고, 《세설신어》에서는 22회 출현한다.

6. [S+未+Z+V+O]형

《맹자》와 《세설신어》중에서 [S+未+Z+V+O]구조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3) 予未得爲孔子徒也.(《孟子·離婁下》)
 (나는 공자의 제자가 될 수 없었다.)
 (14) 雖復刑餘之人, 未敢聞命.(《世說新語·方正》)
 (비록 내가 형을 받은 사람이지만, (당신의) 명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S+未+Z+V+O]형은 《맹자》중 9회 출현하고, 《세설신어》에서는 3회 출현한다.

7. [S+未]형

부정부사 ‘未’는 서술사 없이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이때에는 뒤에 어기사 ‘也’가 따라 온다. 이러한 구조는 그 출현횟수가 그리 많지 않는데, 《맹자》에서만 이러한 경우가 1회 출현한다.

- (15) 或問曰: “勸齊伐燕, 有諸?” 曰: “未也.”(《孟子·公孫丑下》)
 (혹자가 “齊가 燕을 치도록 권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맹자가) 대답하기를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예문(15)에서 부정부사 ‘未’는 단독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未’는 부정부사로써 일반적으로는 부정하는 대상을 벗어나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으나, 대화 등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단독으로 대답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때 ‘未’가 부정하는 대상은 생략된다.

다음의 표는 《맹자》와 《세설신어》에 나타난 ‘未’부정문의 종류와 그 출현횟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2]

문형 \ 문형	맹자	세설신어
S+未+V	9 (12.2%)	44 (38.3%)
S+未+V+O	37 (50.0%)	37 (32.2%)

S+未+O代賓+V	14 (18.9%)	2 (1.7%)
S+未+O代賓+Z+V	0 (0%)	1 (0.9%)
S+未+V+C	2 (2.7%)	6 (5.2%)
S+未+Z+V	2 (2.7%)	22 (19.1%)
S+未+Z+V+O	9 (12.2%)	3 (2.6%)
S+未	1 (1.3%)	0 (0%)
통계	74 (100%)	115 (100%)

[표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맹자》와 《세설신어》에는 ‘未’부정문의 유형이 각각 7종이 나타나는데, 《맹자》에서는 [S+未+O代賓+Z+V]구조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세설신어》에서는 [S+未]구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세설신어》에서는 [S+未+O代賓+V]구조의 출현 용례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있는데, 이는 앞서 ‘不’부정문에서도 나타났듯이 대사빈어의 후치 현상이 중고시기에 와서 기본적으로 완성되었음을 반영하여 준다고 할 수 있다.

IV. ‘無’¹²⁾부정문 문형 비교

《맹자》에서 부정부사 ‘無’로 이루어진 부정문의 수는 총 24개이며, 《세설신어》에서 ‘無’부정문의 총 수는 3개이다.

부정부사 ‘無’가 부정하는 대상의 구조형식에 따라 《맹자》와 《세설신어》중의 ‘無’부정문은 아래의 몇 가지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S+無+V]형

《맹자》와 《세설신어》중에서 [S+無+V]구조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12) 본고에서는 부정동사 ‘無’가 사용된 부정문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같다.

- (1) 君無尤焉!(《孟子·梁惠王下》)
(당신은 그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 (2) 無憂, 桓必勸入.(《世說新語·賢媛》)
(걱정하지 마십시오. 桓이 반드시 (그를) 설득하여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S+無+V]구조는 《맹자》중 6회 출현하고, 《세설신어》에서는 2회 출현한다.

2. [S+無+V+O]형

《맹자》와 《세설신어》중에서 [S+無+V+O]구조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3) 持其志, 無暴其氣.(《孟子·公孫丑上》)
(자신의 의지를 견지하고, 자신의 기분을 남용하지 말아라.)
- (4) 無豫諸兒事.(《世說新語·賢媛》)
(아이들의 일에 상관하지 말아라.)

[S+無+V+O]구조는 《맹자》중 10회 출현하고, 《세설신어》에서는 1회 출현한다.

3. [S+無+V+C]형

[S+無+V+C]구조는 《세설신어》에는 그 용례가 보이지 않으며, 《맹자》의 '無'부정문에서 3개의 용례가 보인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5) 如智者若禹之行水也, 則無惡於智矣.(《孟子·離婁下》)
(만일 지혜로운 자가 禹王이 물을 흘러가게 한 것처럼 한다면, 그 지혜에 대해 미워하지 못할 것입니다.)

4. [S+無+Z+V+O]형

[S+無+Z+V+O]구조는 《맹자》에 4회 출현하며, 《세설신어》에서는 그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 (6) 無以小害大.(《孟子·告子上》)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해하지 마라.)
(7) 無以賤害貴.(《孟子·告子上》)
(천한 것을 가지고 귀한 것을 해하지 마라.)

5. [S+無+V+O+C]형

[S+無+V+O+C]구조는 《맹자》에 1회 출현하며, 《세설신어》에서는 그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 (8) 無寓人於我室.(《孟子·離婁下》)
(다른 사람이 내 방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라.)

다음의 표는 《맹자》와 《세설신어》에 나타난 '無'부정문의 종류와 그 출현횟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3]

문형 \ 문헌	맹자	세설신어
S+無+V	6 (25.0%)	2 (66.7%)
S+無+V+O	10 (41.7%)	1 (33.3%)
S+無+V+C	3 (12.5%)	0 (0%)
S+無+Z+V+O	4 (16.7%)	0 (0%)
S+無+V+O+C	1 (4.1%)	0 (0%)
統計 I	24 (100%)	3 (100%)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중고시기 《세설신어》에서 '無'부정문은 그 출현횟수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無'부정문의 문형은 상고시기 《맹자》중의 [S+無+V+C]구조, [S+無+Z+V+O]구조, [S+無+V+O+C]구조가 보이지 않아, 그 문형수가 5가지 유형에서 2가지 유형으로 축소되었다. 전체적으로 《세설신어》 '無'부정문의 문형은 《맹자》에 비하여 단순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V. '弗'부정문 문형 비교

《맹자》에서 부정부사 '弗'로 이루어진 부정문의 수는 총 23개이며, 《세설신어》에서 '弗'부정문의 총 수는 2개이다.

부정부사 '弗'가 부정하는 대상의 구조형식에 따라 《맹자》와 《세설신어》중의 '弗'부정문은 아래의 몇 가지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S+弗+V]형

《맹자》와 《세설신어》중에서 [S+弗+V]구조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 我得志, 弗爲也.(《孟子·盡心下》)
(내가 뜻을 이룬다면 하지 않겠다.)
- (2) 王弗悟, 遂雜進之.(《世說新語·尤悔》)
(王은 깨닫지 못하고, 바로 섞어서 집어 넣었다.)

[S+弗+V]구조는 《맹자》중 17회 출현하고, 《세설신어》에서는 1회 출현한다.

2. [S+弗+V+O]형

[S+弗+V+O]구조는 《세설신어》에는 그 용례가 보이지 않으며, 《맹자》 '弗'부정문에서 1개의 용례가 보인다.

- (3) 雖與之俱學, 弗若之矣. (《孟子·告子上》)
(설사 그와 함께 배운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못 미칠 것이다.)

3. [S+弗+O代賓+V]형

[S+弗+O代賓+V]구조는 《맹자》에는 그 용례가 보이지 않으며, 《세설신어》 '弗'부정문에서 하나의 용례가 보인다.

- (4) 意氣甚篤, 奕弗之疑. (《世說新語·簡傲》)
(정분이 매우 깊어 쫓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4. [S+弗+V+C]형

[S+弗+V+C]구조는 《세설신어》에는 그 용례가 보이지 않으며, 《맹자》 '弗'부정문에서 2개의 용례가 보인다.

- (5) 弗獲於上矣. (《孟子·離婁上》)
(위에서 (신임을) 얻을 수 없다.)
(6) 弗信於友矣. (《孟子·離婁上》)
(친구에게서 믿음을 얻을 수 없다.)

5. [S+弗+Z+V+O]형

[S+弗+Z+V+O]구조는 《맹자》에 3회 출현하며, 《세설신어》에서는 그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 (7) 弗與共天位也.(《孟子·萬章下》)
(그와 더불어 관직을 함께 할 수 없다.)
- (8) 弗與食天祿也.(《孟子·萬章下》)
(그와 더불어 봉록을 함께 먹을 수 없다.)

다음의 표는 《맹자》와 《세설신어》에 나타난 ‘弗’부정문의 종류와 그 출현횟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4]

문형 \ 문헌	맹자	세설신어
S+弗+V	17 (73.9%)	1 (50.0%)
S+弗+V+O	1 (4.4%)	0 (0%)
S+弗+O代賓+V	0 (0%)	1 (50.0%)
S+弗+V+C	2 (8.7%)	0 (0%)
S+弗+Z+V+O	3 (13.0%)	0 (0%)
統計	23 (100%)	2 (100%)

[표4]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세설신어》에서는 ‘弗’부정문의 출현횟수가 《맹자》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고시기 《맹자》에서 4종류이던 ‘弗’부정문의 유형이 중고시기 《세설신어》에서는 2종류로 줄어들었는데, 상고시기 《맹자》의 [S+弗+V+O]구조, [S+弗+V+C]구조, [S+弗+Z+V+O]구조 등이 《세설신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통하여 본다면 《세설신어》 ‘弗’부정문의 문형은 《맹자》에 비하여 단순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VI. ‘勿’부정문 문형 비교

《맹자》에서 부정부사 ‘勿’로 이루어진 부정문의 수는 총 19개이며, 《세설신어》에서의 ‘勿’부정문의 총 수는 8개이다.

부정부사 '勿'이 부정하는 대상의 구조형식에 따라 《맹자》와 《세설신어》 중의 '勿'부정문은 아래의 몇 가지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S+勿+V]형

《맹자》와 《세설신어》중에서 [S+勿+V]구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諸大夫皆曰不可, 勿聽.(《孟子·梁惠王下》)
(모든 사대부들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듣지 마십시오.)
- (2) 勿憂, 尋還.(《世說新語·賢媛》)
(걱정할 필요 없고, 빨리 돌아오십시오.)

[S+勿+V]구조는 《맹자》에 10회 출현하며, 《세설신어》에서는 1회 출현한다.

2. [S+勿+V+O]형

《맹자》와 《세설신어》중에서 [S+勿+V+O]구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3) 勿視其巍巍然.(《孟子·盡心下》)
(그 드높은 모습을 보지 마라.)
- (4) 勿學汝兄.(《世說新語·品藻》)
(너희 형을 배우지 마라.)

[S+勿+V+O]구조는 《맹자》에 5회 출현하며, 《세설신어》에서는 6회 출현한다

3. [S+勿+V+C]형

[S+勿+V+C]구조는 《세설신어》에는 그 용례가 보이지 않으며, 《맹

자》에서 4회 출현한다.

- (5) 不得於言, 勿求於心. (《孟子·公孫丑上》)
(말에서 얻지 못하면 마음에서 구하지 마라.)
- (6) 不得於心, 勿求於氣. (《孟子·公孫丑上》)
(마음에서 구하지 못하면 기에서 구하지 마라.)

4. [S+勿+Z+V+O]형

[S+勿+Z+V+O]구조는 《맹자》에는 그 용례가 보이지 않으며, 《세설신어》에서는 하나의 용례가 보인다.

- (7) 勿以開美求之. (《世說新語·賞譽》)
(낙관적이고 아름다운 것으로써 그것을 (그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다음의 표는 《맹자》와 《세설신어》에 나타난 ‘勿’부정문의 종류와 그 출현횟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5]

문형 \ 문형	맹자	세설신어
S+勿+V	10 (52.6%)	1 (12.5%)
S+勿+V+O	5 (26.3%)	6 (75%)
S+勿+V+C	4 (21.1%)	0 (0%)
S+勿+Z+V+O	0 (0%)	1 (12.5%)
統計 I	19 (100%)	8 (100%)

[표5] 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세설신어》에서는 ‘勿’부정문의 출현횟수가 ‘無’, ‘弗’부정문과 마찬가지로, 《맹자》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맹자》와 《세설신어》 ‘勿’부정문의 유형은 각각 3종류가 있는데, 《맹자》에서는 [S+勿+Z+V+O]형이 나타나지 않으며, 《세설신어》에서

는 [S+勿+V+C]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VII. 결어

본고에서는 상고시기의 《맹자》와 중고시기의 《세설신어》에 사용된 ‘不’ 부정문, ‘未’부정문, ‘無’부정문, ‘弗’부정문, ‘勿’부정문의 문형을 통계조사를 활용하여, 상세하게 비교하여 보았다.

연구 결과, 상고시기의 《맹자》와 중고시기의 《세설신어》에 나타난 부정문의 구조는 차이가 있으며 총 14가지 문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 자세한 통계수치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6]

부정사 및 문형	不		未		無		弗		勿	
	맹자	세설신어	맹자	세설신어	맹자	세설신어	맹자	세설신어	맹자	세설신어
S+Neg+V	150	186	9	44	6	2	17	1	10	1
S+Neg+V+O	142	220	37	37	10	1	1	0	5	6
S+Neg+O代賓+V	2	0	14	2	0	0	0	1	0	0
S+Neg+O代賓+Z+V	0	0	0	1	0	0	0	0	0	0
S+Neg+V+C	44	34	2	6	3	0	2	0	4	0
S+Neg+Z+V	60	140	2	22	0	0	0	0	0	0
S+Neg+Z+V+O	73	42	9	3	4	0	3	0	0	1
S+Neg+Z+V+C	8	6	0	0	0	0	0	0	0	0
S+Neg+V+O+C	0	0	0	0	1	0	0	0	0	0
S+Neg+Z+V+O+C	1	2	0	0	0	0	0	0	0	0
S+Neg+V1+V2	10	5	0	0	0	0	0	0	0	0
S+Neg+Z+V1+V2	8	12	0	0	0	0	0	0	0	0
S+Neg+爲+N施+所+V	0	3	0	0	0	0	0	0	0	0
S+Neg	0	0	1	0	0	0	0	0	0	0
통계	498	650	74	115	24	3	23	2	19	8

[표6] 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상고시기 《맹자》의 부정문과 중고시기 《세설신어》의 부정문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상고시기 《맹자》의 ‘不’부정문과 ‘未’부정문이 전체 638개의 부정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9.7%(572개)인 반면에, 중고시기 《세설신어》의 ‘不’부정문과 ‘未’부정문이 전체 778개의 부정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3%(765개)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 중고시기 《세설신어》에서는 ‘不’부정문과 ‘未’부정문이 부정문의 주류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러한 ‘不’부정문, ‘未’부정문 확장의 영향을 받은 ‘無’부정문, ‘弗’부정문, ‘勿’부정문의 경우는 수량적으로 현저히 감소되고, 문형상으로도 단순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중고시기 《세설신어》의 ‘不’부정문에서 대사빈어의 전치현상이 보이지 않고 모두 후치된 점과 ‘未’부정문에서 대사빈어 전치식의 수량이 현저히 줄어든 실례를 통하여 중고시기 부정문에서 대사빈어의 후치현상은 기본적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參考書目】

- 毛遠明, 〈古漢語否定句中代詞賓語後置的完成時代〉, 《語文月刊》 第11,12期, 1990
 楊伯峻 譯注註, 《孟子譯注》, 北京, 中華書局, 1960
 吳福祥, 《敦煌變文語法研究》, 長沙, 岳麓書社, 1996
 王海棻·趙長才·黃珊·吳可穎, 《古漢語虛詞詞典》,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6
 王 力, 《漢語語法史》(王力文集·第十一卷), 山東教育出版社, 1990
 張萬起, 劉尙慈 譯注, 《世說新語譯注》, 北京, 中華書局, 1998
 張雙棣 等 編著, 《古代漢語知識教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2
 周光午, 〈先秦否定句代詞賓語位置問題〉, 《語文論集》第3集, 1959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古代漢語研究室 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2002
 崔宰榮, 《唐宋被動句研究》, 中國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01
 向 熹, 《簡明漢語史》(下),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1993

玄盛峻, 〈《사기》와 《삼국지》 5종부정문 문형 비교 연구〉, 《中國文學研究》 第37輯, 2008

【中文提要】

本文考察了《孟子》和《世說新語》中有形式標記的五種否定句。即用“不”、“未”、“無”、“弗”、“勿”等否定詞來否定謂語的句子，然後通過《孟子》與《世說新語》五種否定句句型的比較，分析了兩種材料否定句句型上的異同。

其結論如下：

第一，在中古時期的《世說新語》中，“不”否定句，“未”否定句的使用頻率很高，逐漸擴大了自己的範圍，佔有主導的位置。而“無”、“弗”、“勿”等否定詞的句型，受到“不”和“未”否定句擴大的影響，有簡單化的趨勢。

第二，中古時時代詞賓語前置式的數量有所下降，尤其是“不”否定句的代詞賓語的前置變後置的現象，在這一時期基本完成了。

【主題語】

Ancient Chinese, Middle Archaic Chinese, Sentence Pattern, Comparison, Negative Structure, *Mengzi*, *Shishuoxinyu*

투고일: 2010. 5. 7 / 심사일: 2010. 5. 20~6. 8 / 게재확정일: 2010. 6. 12
--